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2월 15일(일) 제1520호

온누리의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18일 '성탄전도예배', 22일까지 '성탄절 온라인 전시회', 21~22일 '성탄주일예배'
20~25일 '크리스마스 블레싱', 25일 '성탄 감사 찬양 예배'(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50분)



사진은 지난해 열린 성탄절 콘서트 'The gift'.

온누리가 구세주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제를 펼친다. 12월 18일(수) 여성사역에서 성탄전도예배 'Christmas for you' 개최하고, 20일까지 미디어사역본부가 주관하는 성탄절 온라인 전시회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작품을 모집한다. 성탄주일예배는 12월 21일(토)과 22일(일)에 드린다. 20일(금)부터 25일(수)까지는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 25일(수)에는 '성탄 감사 찬양 예배'가 이어진다.

여성사역 성탄전도예배 'Christmas for you'는 12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을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예수 탄생 기쁨을 나누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축제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이광재 목사, 더블레스칭버(The blessing chamber), 우먼투우먼(Woman 2Woman)이 특순한다. 사랑챔버와 손인경 지휘자의

특별 인터뷰 순서도 있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는 성탄절 온라인 전시회 '온누리의 크리스마스'를 개최한다. 12월 22일(일)까지 전시회에 소개할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크리스마스 카드' (사진,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등)를 제작해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의크리스마스 2024)나 온누리교회 카카오톡 채팅방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IT지원실 사서함)이나 서빙고 1층 로비에 설치된 빨간 우체통에 넣어도 된다. 작품을 제출할 때는 소속 캠퍼스, 공동체, 이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제출한 크리스마스 카드는 온누리교회 공식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한다.

온누리교회 성탄주일예배는 12월 21일(토)과 22일(일) 드린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주일예배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찬양사역팀에서 성탄 칸타타를 한다.

22일(일) 차세대 예배에서는 '성탄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가이드가 포함된 갑티슈를 나눠준다.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12월 25일(수)까지 이어진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1,300여 명의 청년이 이웃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한다. 화개제일교회, 해금강교회, 한숲농아인교회, 황산교회, 당포교회, 남도교포교회, 하서제일교회 등 23개 지역 교회에서 이웃 초청잔치, 교회꾸미기, 어린이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예배 등을 할 예정이다.

성탄절 당일에는 '성탄 감사 찬양 예배'가 이어진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50분에 드린다. 다른 캠퍼스는 캠퍼스별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부천온누리교회 창립 22주년 감사예배

12월 14일과 15일 주일예배에서

부천온누리교회가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12월 14일(토)과 15일(일) 주일예배(본당)에서 드린다.

부천온누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해 성장시키며, 지역의 차세대와 장애인, 탈북민과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로 자리 잡아 왔다. 정재욱 목사(부천온누리교회 담당)는 "부천온누리교회 창립 22주년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계속해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가 더 낮은 곳을 섬기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네 이웃을 사랑하라!"

2025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2025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패션(PASSION)이 'Love your neighbor' (네 이웃을 사랑하라)를 주제로 막 오른다. 1차 2025년 1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2차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차 24일(금)부터 26일(토)까지 한동대학교 효암캠퍼스에서 진행된다. 1차에는 서빙고 3부 서빙고 4부, 양재 고등부, 인천, 2차에는 강동, 남양주, 대전, 부천, 세종, 수원, 양지, 영종, 평택, 3차에는 서빙고 1부, 서빙고 2부, 양재 중등부, 도곡이 참여한다.

패션(PASSION)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각 부서에서 나눠주는 신청 링크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2-3215-3523

온누리 사랑챔버 오케스트라 25주년 기념 콘서트

12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
라이하 사랑
챔버) 창단 25
주년 기념 콘서
트가 오는 12월
25일(수) 7시 3
0분 서빙고온
누리교회 본당



에서 열린다. 사랑챔버와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콘서트는 무료다.

문의: 02-3215-3263

CGN '오! 마이 박스' 선교부문 우수상

2024 제16회 한국기독교연론대상

CGN 콘텐츠 '오! 마이 박스'가 '2024 제16회 한국기독교연론대상, 선교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오! 마이 박스'는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인들의 응원을 전하는 휴먼스토리다. 지난 3월 CGN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작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CGN 조은희 PD는 "'오! 마이 박스'가 선교사를 격려하는 귀한 도구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오! 마이 박스'는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기훈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과 예배, 말씀과 신앙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에 다시 귀국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성전,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는 1차적으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이후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아무런 예언이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400년 공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죄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두 명의 인물이 언급됩니다.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00년 뒤에 심부름꾼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너 야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눅 1:76~77).

‘주보다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은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마 11:10).

예수님도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소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다 순교 당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말라기〉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5절).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죄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소개하는 이유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진행될 텐데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 낼 수 있겠는가?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제련하는 사람의 불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2절).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세탁에 비유하셨습니다. 빨래가 깨끗이 씻어지듯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하면서 지불해야만 하는 죄 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저서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사망을 선고하시고, 당신이 사망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요 5:24).

여러분, 왜 심판하러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이 지은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쁨의 축제이고, 감사의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가 은을 제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제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3~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불의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인데, 당시 백성들은 최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완벽한 의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과 의로우신 예수님의 제물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몸으로 드린 제물이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롬 5:9).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은 불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의로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 대속이 될 수 있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엡 1:7). 성탄절은

예수님이 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제물이 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제물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대신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제물이 되기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대림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400년 이후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가 높고, 구원은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속’이란 ‘대신 죽어줌’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절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6절).

하나님은 심판만 하지 않고 대신 심판을 받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탄 찬양을 부를 때 가사 속에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성탄절에 부르는 모든 찬양이 은혜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언어(1)

아담의 언어와 사람의 말

나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프랑스에서 석박사를 공부했다. 이때는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가 팽배했던 시기여서 나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이라는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다.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떠난 것이고, 그래서 그 지식은 아무리 풍부하고 뛰어나도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영적 각성을 받고자 함이었다. 잠들기 전에는 “제가 하는 공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내 연구 주제는 예술인데, 그중에서도 연극과 영화의 미학적 문제들을 소통의 관점에서 밝히는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 택한 것이 기호학이다. 기호학은 대상을 하나의 기호 또는 기호체계로 파악하고, 기호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의미를 생산하며, 소통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호란 재화를 대신하는 화폐 또는 지구를 대신하는 지도와 같이 어떤 것을 대신하는 다른 어떤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신하는 ‘말’도 기호이다. 사람은 말로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기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기호학자들은 여러 기호 중에서 ‘아담의 언어’를 궁극의 기호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근접한 기호로 수학이나 음악을 꼽는데, ‘사람의 말’은 궁극의 기호가 아님을 뜻한다. 그러

면 왜 ‘아담의 언어’가 궁극의 기호일까? 우선 간단히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최초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은 언어로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직접 소통했기 때문이다(창 2:19-20). 다시 말해서 ‘아담의 언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과 같은 언어이자, ‘아담의 언어’에는 지금 우리의 ‘말’에는 없는 영적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은 귀로 듣거나 눈으로 읽은 방식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음 안에서, 더 정확하게는 영 안에서 율법의 형식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뜻이 깨달아지는 방식으로 들었을 것이다.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즉각 이해하면서 그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가운데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다. 에덴동산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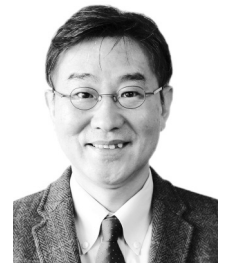
그러면 ‘사람의 말’은 어떤 기호일까? ‘사람의 말’은 ‘음성(또는 문자)’이라고 하는 물리적 측면과 ‘내용’이라고 하는 관념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말을 통해 나타내는 의미는 ‘음성(또는 문자)’과 ‘내용’의 연합으로 생산되는데, 문법은 바로 이 연합의 규칙을 말한다. 문법은 ‘음성(또는 문자)’과 ‘내용’의 연합이 언어권마다 다르고, 같은 언어권 이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리고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과일 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서양어권에서는 즉각적으로 욕망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욕망의 은유이다. 이는 선악과를 무의식적으로 사과라고 연상하고,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파리스의 사과’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실 문법은 매우 느슨한 규칙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규칙을 벗어나는 말, 가령 고통이나 고난을 말할 때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다”라는 식의 수사적 표현을 더 많이 쓴다.

기호의 규칙이 느슨한 것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장점은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호한 말을 하면서 곤경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시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점은 사람의 ‘말’로 정확한 의미의 표현이나 전달을 할 수 없다는 회의주의가 그것이다. 이것은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회의주의로부터 말의 본질은 ‘오해’라는 주장, 즉 ‘사람의 말’은 불완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이 불완전하면, 이 불완전한 말로 생각하거나 소통하는 것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다.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사람의 말’이 불완전함을 집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말’이 불완전해진 것은 ‘사람의 말’에서

영적 측면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창 3:4-5)이라는 뱀의 유혹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작동했다. 이에 금지된 과실을 따 먹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다. 추방은 단순히 공간적인 제약만이 아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진 것이며,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 아담의 죄지음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고, 아담은 생존을 위해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부조화의 존재가 되었다. 게다가 생명 나무의 접근도 차단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아담의 원죄는 ‘아담의 언어’의 오염 → 하나님과 소통의 단절 → 관계의 끊어짐 → 부조화와 죽음의 결과로 이어진다. 그 이후 아담 한 사람의 교만이 인류의 집단적 교만으로 확대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바벨탑 사건의 결과 사람들은 이제 ‘말’이 달라져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다(창 11:7). 이처럼 성경은 죄로 인해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그 결과 궁극의 언어가 영적 측면을 상실한 불완전한 ‘말’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서명수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특별기고

아타나시우스의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몇 년 전, 동료 글렌 선사인 박사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고전 작품의 하나인 아타나시우스의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를 소개하는 글을 썼다. 290년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아타나시우스는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덜 중요한 피조물이라고 가르친 아리우스파 이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방어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아리우스파는 당시 교회에서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지만, 아타나시우스는 예수가 ‘매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성경적인 관점을 지키고 싸웠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상에 맞선 아타나시우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선사인 박사는 소개 글에서 아타나시우스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훼손되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기 때문에(골 1:15)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었고, 그분의 생명과 사역과 가르침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새롭게 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그분의 능력 있는 사역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모든 창조의 주님이시고, 따라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겠는가. 사람이 팔을 뻗은 채 죽는 것은 십자가의 위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죽음과 그의 뻗은 팔이 얼마나 합당한지 다시 보게 된다. 그가 한쪽 팔은 옛 백성을, 다른 한쪽 팔은 이방인을 이끌어 오셔서 이 둘을 그분 안에 연합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가 어떻게 구속하며 죽으실지 예언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인간이 됨으로써 타락한 인간을 그분께로 이끌어 오

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내신다. “그분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부터 수치를 당하셨다. 그분은 이로 인해 상처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러한 능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참으셨고 이들을 지키고 치유하셨다. 즉 이 모든 일이 구원자의 성육신으로 인한 수많은 업적인데, 그 수를 세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를 세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육안으로 파도를 일일이 볼 수 없다. 파도를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감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는 우리 시대 이단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일례로 아리우스파는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이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모든 교리 속에 살아 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범이 되는 좋은 스승 정도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다.

C.S. 루이스는 아타나시우스의 작품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만약 신간이나 고전 중 하나만 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고전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확히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현대의 책만 읽을 경우의 위험으로부터 전문가보다 훨씬 덜 보호받는 입장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은 아직도 검증받는 중이고, 비전문가는 그것을 판단할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위대한 기독교 사상의 주체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며, 종종 저자 자신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 책에 숨겨져 있는 모든 함축적 의미도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수 세기 동안 불어오는 깨끗한 바닷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어오게 하는 것이며, 이 일은 고전을 읽을 때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념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에 읽으면 도움이 된다.

/ 존 스톤스트리스, 캐시 린더, 글렌 선사인
원문: breakpoint(20231204)



“나는 ‘사랑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선교지, 한 영혼 사랑하는 최윤숙 선교사

놀라운 선교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만났다. 반평생을 선교지에 교회 지으러 다니고, 모자(母字)가 2대째 선교를 이어가고, 선교하다가 남편을 천국으로 보냈는데, 선교지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시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선교한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최윤숙 선교사다. 최윤숙 선교사는故 민성기 선교사의 아내다.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는 하나님, 선교지, 한 영혼을 사랑한다. 30년 넘게 이어지는 그 아름답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사랑에 흠뻑 빠진 최윤숙 선교사는 전도에 목숨을 걸었다. 대학 졸업하고 디자인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말마다 전도지를 만들어 전도했다. 청년 시절 최윤숙 선교사가 다녔던 교회는 성도가 13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새신자가 올 때마다 버선발로 뛰쳐나가 가장 먼저 반겼다. 하나님이 최윤숙 선교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영혼들이 반가웠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5년 여름, 어느 날처럼 전도여행을 떠났던 최윤숙 선교사가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며 떠난 전도여행이었다. 그곳에는 영혼과 사랑에 빠진 또 다른 선교사 후보생이 있었다. 바로故 민성기 선교사다. 전심으로 전도하는 최윤숙, 민성기 선교사를 눈여겨 보던 한 목사가 두 사람을 이어졌다. 하나님께 동일한 비전을 받은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다. 선교사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던 두 사람에게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윤숙 선교사는 민성기 선교사와 결혼하면서 온누리 교회로 교회를 옮겼고, TIM(두란노국제선교회)에서 본격적인 선교 훈련을 받았다. 그사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 두 명이 생겼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던 두 사람에게 사랑할 존재들이 계속 늘어났다.

정체성 혼란, 그 끝은 '더욱 사랑'

1999년, 최윤숙 선교사와 민성기 선교사가 첫 번째 선교지 스리랑카로 떠났다. 민성기 선교사가 스리랑카 선교센터를 짓는 일에 전문인 선교사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스리랑카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최윤숙 선교사의 남모를 고민이 깊어졌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선교지에 가기 전 기대가 컸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를 잔뜩 품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집에서 아

이를 돌보고, 휴먼지 가득한 남편의 옷을 빨래하고, 집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와 동떨어진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윤숙 선교사의 속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선교에 대한 열망을 더 키우고, 한 영혼의 귀함을 더 깊이 알게 하셨다. 한 영혼을 기다리며 더욱 사랑하게 하셨다.

최윤숙 선교사가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한 국인 주부를 만났다. 그 주부를 통해서 한국인네 가정을 알게 됐는데, 그들이 최윤숙 선교사에게 자녀들 수학 과외를 부탁했다. 최윤숙 선교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무료 과외를 조건으로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제안했다. 그 일이 전도의 시작이었다. 최윤숙 선교사는 매주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주일마다 한인교회에 데려가 함께 예배드렸다. 그 학생들의 동생들이 따라가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랐다. 어린아이들까지 최윤숙 선교사에게 맡길 수 없었던 부모들이 함께 교회에 왔다. 최윤숙 선교사는 교회 오가는 길에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 마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기를 기도하면서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네 가정 모두 하나님을 만났다.

망고나무 아래서 드린 예배

최윤숙 선교사와 민성기 선교사가 2003년 스리랑카 선교센터 건축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다. 다음 파송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당시는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워서 아프가니스탄 파송이 보류되었다. 선교지에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선교를 쉬지 않았다.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다음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007년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최윤숙 선교사가 깜짝 놀랐다. 나무 한 그루 없고, 먼지 날리는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최윤숙 선교사의 마음에 불쑥 불평이 생겼다. 눈을 질끈 감으며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렇게 낮두리하며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이 너무 예뻐했다. 그 순간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 선교지, 한 영혼 사랑하는故 민성기 선교사(왼쪽)와 최윤숙 선교사(오른쪽).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늘(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가 살기 좋은 땅이었다면, 캄보디아는 사역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선교사로 살고 싶다는 남편과 저의 소망을 들어주시려 보내신 땅이 캄보디아였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캄보디아의 온마을을 뛰어다니며 전도했다. 집마다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 여러 마을을 돌았는데 그 일들을 가장 가까에서 지켜보던 학사 자매가 자기 마을인 뿌라예 엠벨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가 곧장 그 마을을 찾아갔다. 예배 장소가 마땅치 않아 망고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고 첫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매주 망고나무 아래서 복음의 씨앗이 심겼고, 망고 열매와 함께 복음의 열매도 자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돗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엠벨교회를 세웠다. 두 사람이 세운 첫 번째 교회였다.

참된 선교사, 내 남편故 민성기

엠벨교회가 안정될 무렵 민성기, 최윤숙 선교사는 다른 개척지를 정탐하러 다녔다. 그리고 기도하며 만난 루엡마을에 루엡교회를 세웠다. 두 사람은 교회를 오가며 열띤 사역을 했다. 특히 다음세대 양육에 힘썼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남달랐다. 망고나무 아래서 말씀을 듣던 청소년들이 어엿한 사역자가 됐다. 목회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이들도 있었다. 주변 선교사들이 “어쩔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냈냐”며 칭찬하고 부러워할 정도였다.

그런데 2021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다. 온 교회가 문을 닫고, 모이지 못했다.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성기, 최윤숙 선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고 마을을 돌며 전도했다. 그러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바이러스는 민성기, 최윤숙 선교사를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고열에 시달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행히 온누리교회에서 보내준 에어 앰블런스(Air ambulance)를 타고 한국에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 민성기 선교사는 회복이 더뎠고, 상태가 악화됐다. 에크모(ECMO, 체외막형 산화장치)를 낀 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다. 폐 이식까지 받았다. 많은 성도의 기도로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폐 이식 거부반응이 나타났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다.

“옆에서 남편을 지켜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남편에게 조심하 ‘전도한 걸 후회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단호하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자기는 전도했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된 선교사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민성기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했다. 2023년 5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여행길에 올랐다. 천국에 가서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선교지로 데려가 달라던 남편의 유언을 따라 지난해 10월, 최윤숙 선교사는 민성기 선교사의 유골을 들고 캄보디아로 돌아왔다. 지금은 최윤숙 선교사가 두 선교사가 없던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자녀에게 시급한 마음의 힘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 낳기 두려워요”, “부모가 된다는 게 이렇게 버거울 수가 없어요” 등이다. 자녀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했는데, 자녀를 키우는 일이 그토록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시급한 마음의 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다.

젊은 부모들이 왜 그렇게 마음에 힘이 없어서 자녀 키우기를 힘들어하고, 자녀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밑바닥에 있던 화가 올라오면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일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공부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줄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자란 마음의 힘을 기르지 못한 젊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똑같이 대물림하는 것이다.

요즘 직장도 비상이다. 취업한 지 겨우 한 달 됐는데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다.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신규 직원 교육을 내게 맡겨 강의하러 종종 갈 때가 있는데, 그들 마음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인정과 애착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는 것이다. 그런데 어릴 적 부모와의 애착이나 정서적 만족감, 충분한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부분을 채우려 한다. 그 공간을 채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결국 직장생활에서 못 견디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녀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마음’이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억이 생겨나거나 자리 잡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감정과 생각, 기억 모두 부모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들이다. 자녀의 마음은 부모가 형성시켜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신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봐야 한다. 생명의 근원인 자녀 마음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음의 힘은 자녀가 행복할 때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부모가 변하기를 원하신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마음에 힘을 주기를 원하신다. 부모가 자녀 마음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자녀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계속 건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늘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녀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장점을 살려 무슨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말해줘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내편’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다.

자녀 마음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도 잘해야 한다. 자녀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반쪽짜리 방법이다. 배우자에게 ‘당신 이런 거 정말 잘하네’, ‘당신은 이런 점이 참 좋은 사람이야’라고 칭찬해주면 누가 들을까? 자녀들이 듣는다.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나도 결혼해서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 결혼에 대해 자연스럽게 좋은 가치관이 형성된다. 반대로 부부가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부부가 되어도 저런 대우를 받

으며 사는구나’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 않고, 가정을 꾸리는 일에 부정적인 마음을 쌓아 올리게 된다. 자녀 마음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와의 데이트도 추천한다.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 둘이서만 하는 데이트를 자주하기를 추천한다. 예쁜 옷을 갖춰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웬만하면 그날은 자녀가 좋아하는 것들로 데이트 코스를 준비하면 좋다. 사진으로 그날의 추억들을 남겨놓는 것도 추천한다. 멀리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안 될 수 있다. 낙담하지 말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일대일 데이트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밤에 잠들기 전 잠깐 자녀와 함께 누워서 대화 나누는 것도 일대일 데이트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 한 잔 들고 잠깐 집 앞 공원을 걷고 와도 행복한 일대일 데이트가 된다.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함께 보는 것도 좋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면 더욱 사랑할 수 있다. 부부도 계속 사랑을 이어가야 하고, 부모와 자녀도 돈과 정성, 열정을 들여서 사귀어야 한다. 부모와의 사랑을 잘 이행하는 아이들이 결국 마음에 힘이 생겨나고, 행복하게 된다. 부모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의 영혼을 얻게 된다.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도록 돕고 싶다면 부모 먼저 자녀와 사귀어야 한다. 생명의 근원인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녀의 마음을 잘 돌봐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심어주는 부모들 되기를 축복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4편 자녀에게 시급한 마음의 힘’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를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2월 9일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1~15절>



1.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사탄과 악한 짐승이 가진 힘과 능력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짐승에게 잠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알맞은 답을 모두 찾아보세요(계 13:1-5).

① 군대와 무기 ②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 ③ 오만함 ④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

2.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짐승이 한 일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계 13:11-15).

① 첫 번째 짐승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②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했다
③ 첫 번째 짐승을 우리에 감옥에 가두었다
④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했다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창조과학 캠프 참가자 소감

가장 궁금했던 세 가지와 그 해답

창조과학에 대해 너무 궁금했고,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었다. 나는 창조과학이 궁금하고, 창조과학을 더 알기 위해서 올해 6월 창조탐험대에 신청했다. 그런데 개인 일정이 하필 딱 그날 잡혀서 아쉽게도 참가하지 못했다. 10월이 되어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일정이 여유로웠고, 6월에 신청하려고 했던 마음 그대로 창조과학 캠프에 갔다.

첫날, 전도사님이 질문할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전부터 친구들에게 받아온 질문들과 내가 의문을 가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공룡 이야기였다. ‘

과연 공룡이 존재했을까? 존재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외계인은 존재할까?’, 세 번째 질문은 ‘죄’에 관한 것이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셨을까?’가 궁금했다.

첫날은 대부분 수업을 버스에서 들었다. 물론 채석강 같은 장소에 가서 지층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지식은 버스에서 얻었다. 노아의 홍수가 진실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과 완전히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저녁에 내가 처음으로 궁금했던 공룡 관련 질문을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아주

아주 재미있는 ‘크크크 뉴스’도 만들고, 하루 동안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맛있는 간식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마이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다. 노아의 방주 흔적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위대했고 웅장했기 때문이다. 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남은 두 가지 질문이 해결되었다. 나와 같은 질문을 친구들이 했고,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1박 2일 동안 지식을 많이 얻고 집에 왔다. 이제 친구들에게 창조과학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 구윤환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고1)



멘토가 멘티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군사’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현실의 벽에 부딪혀 회개하고 낙담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주일마다 고개를 떨구는 절망의 시간을 경험한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열량 높은 음식을 피하고 운동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지엽(枝葉)적인 것보다 우선인 것은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식사량, 운동 시간, 스트레스, 수면시간 등)을 건강한 패턴으로 바꾸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균형 잡힌 몸이 만들어진다. 신앙생활도 다이어트와 똑같다. 삶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신앙 패턴을 바꾸는 변혁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변혁 과정을 제안한다.

첫째, 예배 집중을 위해 기록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예배 시간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고, 졸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매번 결단해보지만 결국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 필자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10년 전부터 설교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고 있다. 보고, 듣고, 적는 것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설교 내용 이해를 도와준다. 더 중요한 것은 주중에 이 노트를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

둘째, QT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필자는 10년 넘게 <생명의 삶>을 숙제하듯 해 오다가 최근

서는 마귀에게 ‘틈(Foothold)’을 주지 말라는 경고와 그 방법을 주고 있다(엡 4:27).

여기서 ‘틈(Foothold)’이란 산에 오르고 내려갈 때 반드시 밟고 가야 하는 곳이다. 그곳 말고는 밟아서도 안 되고, 밟을 수도 없는 자리를 말한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그 틈(우리가 반드시 밟아야 할 그 자리)을 마귀에

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한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OO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혼인 서약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OO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혼인 서약을 하면 결혼식장이 갑자기 썰렁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분주함과 나태로 “하나님도 좋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더 좋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해도 원함 그 자체로 끝나 버릴 것이다. 주일예배 2시간은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연장이며, 일주일 동안의 우리 삶은 주일예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매일 QT하면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군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일 것이다.



이호진 멘토
(부천드림플러스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3년 전부터 “아하, QT가 이렇게 중요하고 유익하구나”를 깨달았다. QT가 성경 공부와 함께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주시는 짧은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다(창 1:4).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마귀에게 공중 권세가 넘겨지므로(눅 4:6)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적 가치관이 마치 뜨거운 물 속 개구리처럼 아주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적 가치관(요일 2:16)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적용하는 QT를 생활화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를 비유해서 우리를 하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싸움 줄이는 기술, ‘내면의 아이’와 ‘부모의 마음’

부부 싸움을 눈에 띄게 줄여서 이혼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호기롭게 소개한 남편이 있다. 이 남편은 아내와 가능하면 부딪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부부 싸움을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대부분 자기 잘못이라며 억지로 상황을 수용하고 참고 배우자의 말을 따랐다. “그래! 내가 참는 것이 최선이지!”, “괜히 격하게 말해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지!”라며 자기 마음과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억울할 때가 많았다. 틀림없이 이번에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아내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억울한 감정이 들 때면 그도 인간인지만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관계가 틀어지고, 억울함도 해소되지 않았다. 부부 싸움의 강도만 높아졌다. 남편은 어떻게 하면 부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기가 막힌 생각 두 가지가 떠올랐다.

첫째, 아내의 ‘내면의 아이’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현재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아내의 나이를 버리고, 내면의 아이를 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했다.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과 분노도 사라지

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와 싸우는 아내는 성인이 아니라 내면의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는 아이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남편이 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얻은 것은 자녀 양육이 큰 도움이 됐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다.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부모와 아이가 충돌하게 된다. 어쩌면 그때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싫어”, “안 해”일 것이다. 더 자라면 “강요하지 마세요, 날 내버려 둬요!”라며 자기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 성숙한 부모가 되어 간다.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깊이와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양육 경험은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배우자를 성인의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어린이와 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나와 다투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가질만한 기대의 좌절이 지금 자신과 다투는 배우자의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내면의 아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궁핍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다. 남편이 배우자를 대하는 관점을 다르게 하면 아내를 더욱 궁핍하게 여기는 마음을 얻게 됐다. 충돌하고 싸우고 자신의 억울함이 배우자에게 수용되도록 부르짖었던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자녀를 바라보듯 아내의 마음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불편한 내면의 아이를 만나게 된다. 물론 아내도 남편의 내면 아이를 볼 수 있다면 부부 관계가 더욱 유연해질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하지 못한 숙제가 있다. 어린 시절 정말 좋은 부모의 양육을 받았더라도 갈망을 느끼며 자랄 수 있다. 어쩌면 깊은 마음의 갈망이 동기가 되어서 인생의 반쪽을 찾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채우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채울 기회를 결혼 안에서 얻을 거라고 희망한다. 따뜻함에 갈망을 느꼈던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할 것이다. 마치지 못했던 숙제를 다시 완수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말이다. 배우자 내면의 아이를 보면서 과제를 하나둘 해결할 수 있다. 단순히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게 된다. 부부 갈등으로 서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 하나가 상대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결핍된 부분을 볼 수 있다. 어쩌면 늘 부부 싸움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오래된 마음속 결핍의 핵심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자신과 동등한 인격적 성숙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는 성장해야 하고, 더 기다려 줘야 하는 존재라고 느낀다. 미성숙한 모습이고, 다듬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늘 갖게 된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 마음이 아이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부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다. 따뜻한 부모 자아로 배우자를 바라봐야 화해를 경험할 수 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도 바라보고, 배우자도 바라볼 때 부부 싸움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부부 싸움 과정에서 배우자 내면의 아이를 보려는 태도와 부모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려는 자세를 가지고 성숙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 (왕하 2:24)

〈열왕기하〉 2장 24절은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한 아이들을 저주해 암곰들이 나와 42명을 찢어 죽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사소한 조롱에 과도하게 반응해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대표해야 함에도 왜 저주를 내리고, 그 결과로 아이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남긴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엘리사가 향하던 당시 벤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타락한 도시이다(왕상 12:28-29). 벤엘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단순히 선지자를 놀린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과 그 대리자에 대해 우상 숭배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멸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란 표현은 결혼 전까지 젊은 사람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연령대에 해당한다. ‘아이들’의 의미가 나이가 젊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이 단어의 어원에는 ‘미혹되다, 더럽히다’라는 의미도 있다. ‘아이들’이 우상 숭배에 미혹돼 신앙적,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던 자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왕하 2:23)는 말은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니었다. 당시 사회에서 대머리는 문둥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져 매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다. “올라가라”는 표현은 엘리사가 승천한 사건을 언급하고, 그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선지자로 임명된 사실을 조롱하고, 그도 엘리야처럼 사라지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당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엘리사

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은 엘리사 개인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사역을 대적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직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엘리사의 저주로 인한 암곰의 출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엘리사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다. 2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이 표현으로 ‘아이들’이 단지 엘리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는 저주스러운 행위를 했음을 암시한다. 또한 암곰에 의해 찢겨 죽은 자가 42명이라는 것은 많은 아이가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배격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엘리사의 저주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한 것에 대한 신적 응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암곰들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것이며,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 사건이다.

본문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엘리사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 아이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한 것이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가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며, 그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의 명령, “바벨론에서 떠나라”

12월 16일~12월 22일

〈요한계시록〉

17:1~20:10



목상포인트 1:

세상 제국이 제아무리 화려하고 강해도 성도는 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우상 숭배와 죄악의 도시 바벨론(큰 음녀)은 결국 멸망하기 때문이다. 음녀와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 그리고 어린양의 승리

에 대해 묵상하자.

▶요한은 광야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를 보았는데, 그 여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요, 큰 바벨론이다. 음녀는 음행으로 가득 찬 금잔을 손에 가졌고,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 피에 취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에게 미혹될 것이다. 그러나 짐승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허용된 것이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연합해 어린양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겠지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양이 승리하실 것이다.

목상포인트 2: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면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살피고,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세상을 현혹한 바벨론에게는 비참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바벨론은 바다에 던져진 뱀처럼 한 시간에 망하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 당하는 이유는 음행, 교만, 사치, 우상 숭배 때문이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는다.

“내 백성아, 거기서(그 여자에게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죄악과 불의를 기억하시고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신다.

목상포인트 3: 마지막 때 어린양은 거룩한 심판주로 오신다. 어린양은 악의 모체인 사탄(용, 옛 뱀, 마귀)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완전히 멸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소망으로 사탄의 멸망과 어린양의 승리를 묵상하자.

▶바벨론이 멸망 당한 이후 천상에는 영광송이 울려 퍼진다. 심판과 대비를 이루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과 기쁨을 묘사한다. 웅은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는 복이 있다. 어린양은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며, 백마를 탄 전사로 오실

것이다. 천군 천사를 이끄시는 어린양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다. 어린양을 대적하며 용을 따르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서 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 또한 악의 모체인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져 천 년 동안 결박당할 것이다. 천년 뒤 사탄과 그의 무리가 전쟁하려 하나, 하늘의 불이 그들을 사르고 사탄은 영원한 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로써 성도를 현혹하던 사탄의 심판이 종결된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바벨론이 멸망 당하는 이유는 음행, 교만, 사치,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자.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다. 내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 죄의 자리가 어디인지 살피고, 그 유혹을 끊기로 결단하자. ▶심판 날에 바벨론의 부귀영화는 한 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자. ▶성도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부족한 나를 온전한 아내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자. ▶성도를 현혹하는 사탄은 패망할 존재다. 어린양의 승리를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행하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대학청년부를 위하여!

양재온누리교회 ‘대청 어머니기도회’에서 매주 금요일 대학청년부와 예배공동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한 영역이기에 교육을 담당하는 기독교학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요.

양재온누리교회 ‘대청 어머니기도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가르치고,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함을 깨우치도록 기도해주시요.

현재 대학청년부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겨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랑애틀남’과 청년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블레싱’, 주변의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별 전도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해주시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요.

우리의 기도 사역을 통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도록 기도해주시요. 덧붙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요.

/ 김은지 권사(서초A공동체)

“더 멋진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14주년 감사예배 및 임시총회



사진은 NGO 더멋진세상 14주년 감사예배.

NGO 더멋진세상 14주년 감사예배 및 임시총회가 12월 10일(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5층 라이즈 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 및 실행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NGO 더멋진세상 창립 14주년 감사예배는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 환영인사, 14주년 감사영상, 박대호 장로 대표기도, 더멋진

챔버 축하공연,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박종길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NGO 더멋진세상은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서 “NGO 더멋진세상이 걸은 순종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고 크게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광동 장로는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4년 동안 사역을 이어올 수 있도록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기도와 헌신,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면서 “NGO 더멋진세상이 써갈 15년, 20년, 30년, 50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인사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성경 읽고, 영화 보고, 선물도 받고!

CGN ‘성경통독 챌린지’, ‘윙페더 사가 시즌2’ 이벤트

CGN이 신규 콘텐츠 발표와 함께 성경 읽고, 영화 보고, 선물도 받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CGN 신규 성경통독 콘텐츠 ‘CGN과 함께 일-일 통독’이 2025

년 1월 1일 공개된다. ‘성경통독 챌린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성경통독 굿즈를 선물할 예정이다. 성경통독 콘텐츠를 시청하고 기간(1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아이팟, 독서대, 키링, 기프트콘 등)도 보내준다.

오는 12월 22일(일)과 29일(일)에는 ‘나니아 연대기’의 계보를 잇는 기독교 판타지 대작 ‘윙페더 사가 시즌2’ 우리말 더빙본을 기독교 OTT ‘풍당’에서 단독 공개한다. 12월 22



일 1~3편, 12월 29일 4~7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맛값 남기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12월 21일(토)까지 기독교 OTT ‘풍당’에서 ‘윙페더 사가 시즌2’ 예고편을 보고 댓글을 남기면 된다. 그밖에 ‘윙페더 사가’ 캐릭터 중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SNS에 공유하거나 퀴즈를 푸는 이벤트 등을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CGN 홈페이지나 기독교 OTT ‘풍당’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종료

이웃 1,185가구에 쌀, 김치, 햇반 전달

2024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이 막 내렸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 955명이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교회 등과 연합해서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웃 1,185가구에 쌀과 김치, 햇반 등을 전달했다.

작은자교회,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중앙사회복지관, 신양장로교회, 수서명화복지관, 산마루교회, 나섬교회, 교남주민센터 등지에서 사랑을 나눴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교회-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12월 16일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온누리교회-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이 12월 16일(월)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한국교회와 탈북민, 어떻게 동행할까?’를 주제로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조동준 원장(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개회사, 이재훈 위임목사 환영사, 노치형 목사(온누리교회 통일

위원회 담당) 대표기도, 발표 및 토론, 김해기 장로(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위원장) 폐회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공동포럼에는 한반도 통일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10-5792-3290



12월 화요성령집회 ‘LOVE LETTER’

12월 화요성령집회가 ‘LOVE LETTER’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2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7일 최성민 목사 ‘생명의 편지’ (요 3:16-21), 24일 권오중 집사 ‘사랑의 편지’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본부 135기 두란노어머니학교 개강

본부 135기 두란노어머니학교가 개강한다. 2025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월 7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여성을 세우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2-2182-9114

서빙고 한글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

12월 15일 11시 30분 신동아 쇼핑센터 301호

서빙고 한글학교에서 ‘2024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15일(일) 11시 30분 신동아 쇼핑센터 301호에서 열린다. 한글학교 말하기 대회에서는 몽골, 네팔,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에서 온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

다. 심사는 이비오 목사, 원우현 장로, 이영복 장로, 김정숙 권사, 김소영 교사 등이 할 예정이다.

한편, 서빙고 한글학교 교사를 모집한다. 유학생과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성도는 전화(010-5377-3619)로 문의하면 된다.

예수 정기 전시회 ‘Symphony of Color’

12월 25~30일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2024년 예수 정기 전시회 ‘Symphony of Color(The First Movement: Moments Connected by Color)’가 12월 25일(수)부터 30일(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발달장애인 화가 22명이 참여해 작품 105점을 선보인다. ‘색의 변화’를 주제로 하나의 색에서 시작해 추가되는 색을 통해 아름다운 색채 교향곡을 눈으로 감상하도록 표현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작품 감상 외에도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시상식

12월 22일 오전 10시 50분 온누리교회 도서관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오는 12월 22일(일) 오전 10시 50분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에서 열린다. 올해 차세대 독후감 대회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리라는꿈 소속 어린이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진행했다. 부모와 차세대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일까?>를 읽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고민하고, 그 내용을 독후감으로 써서 제출했다. 올해 차세대 독후감 대회에는 차세대를 비롯한 성인성도의 작품까지 다수의 독후감이 들어왔다.

문의: 02-3215-3110

/ 홍하영 기자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선교학교 참가자 간증



/ 김경우 성도(양천공동체)

‘통일선교’로 향하는
참된 길

어려서부터 배워온 통일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점차 늘어나는 탈북민들을 보면서 ‘통일선교 사역은 어떤 걸까?’라는 막연한 호기심에 통일선교학교 2기 과정을 신청했다. 6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 지식이 터무니없고 형편없는 것임을 알았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식은 내가 배우고 알고 있던 것과 아주 달랐다. 국민의 잘못된 의식이 통일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도 알았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를 우리나라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배웠다.

통일선교학교 첫째 날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고, 한반도에 대한 알 수 없는 희미한 감정이 내 마음속 바닥에 생겨났다. 매주 강의를 들으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우리가 탈북민이나 북한 주민에 관해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서 듣고 배운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소임을 배웠다. 강의와 나눔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각각의 강의와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

은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큰 경험이었다. 내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통일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통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다.

아웃리치에서는 평소에는 가기 힘든 통일 관련 지역을 방문했다.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간접 경험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북자 가족들의 아픔 등을 알게 되면서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글귀를 보면서 크리스천들이 통일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통일선교와 복음선교를 위해 나부터 변화하고, 그 변화들이 모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하시고 원하셨던 참된 통일이 올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지혜를 주시고, 영적 변별력을 키워 주시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통일에 대한 참된 역할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탈북민과 북한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일선교를 향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

전도학교 수료 간증



/ 강윤희 성도(OCC공동체)

든든한 무기가 생겼다!

작년부터 친정 식구들을 포함한 가까운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교회에 ‘5분 전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30기 5분 전도학교 가 시작된 첫날, 우연히 장경문 장로님을 만났다. 장로님이 내게 5분 전도학교 참석을 권유하셨는데,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더니 다음 주부터 오라고 하셨다. 마음속으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미루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가 기회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첫 주 강의는 녹음테이프를 듣고, 과정에 참석했다.

첫 수업에서 5분 전도 전문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전문 암기 숙제를 받았다. 이렇게 가까이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도구가 있었는데 내가 무시했구나 싶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들었다. 그날 받은 은혜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주 금요일부터 난생처음 자발적으로 새벽기도회에 나갔다. 요한서신 강의, 일대일제자양육과정, 이스라엘 선교학교 ‘복음과 섬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에도 참여했다.

사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한지 2년이 되었지만, 참여하는 과정이 없었다. 갑자기 많은 과

정을 경험하게 됐다. 이 모든 과정이 올해로 만 60년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30년을 준비시키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5분 전도학교에서 이뤄왔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계 전도 기회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매일 만나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성령님이 사인을 주시면 조금씩 시도해보는 일이 생기고 있다. 오래도록 만남을 유지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늘 하신다. “사랑한다면 나의 복음을 전하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만나고, 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때와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아직 5분 전도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써먹기에는 경험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든든한 무기가 생겼기에 앞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가 맺어질 것을 확신한다.

양재 와이미션 참가자 간증



/ 이원형 성도(서초D공동체)

선교와 부르심

7주 동안 진행되는 와이미션에 참가했다. 주말에 시간을 구별해서 참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은 점점 풍성한 은혜로 내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 매주 강의를 들으면서 배움의 기쁨을 얻었고, 와이미션 스태프들이 준비해 주신 사랑 가득한 음식과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다. 와이미션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선교적 체험이었다.

선교사님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양화진을 방문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선교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로 다가왔다. 또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시대와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구현된 과정,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강의에서 접한 초대 교회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도 큰 울림이 있었다. 초대 교회는 복음을 특정 민족이나 장소에 제한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며 원심적인 선교를 했다고 한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린 구원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 줬다. 나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러 가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

‘은사와 선교의 연결점’이라는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물임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 고민하고,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다. 선교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 삶의 경계가 확장돼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와이미션 과정을 수료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봤다. 선교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깨달음을 따라 앞으로도 선교적 삶을 지향하고, 복음 확장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고양은평공동체 아웃리치 간증



/ 황소영 성도(고양은평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나는 지난 7월 서빙고온누리교회에 등록했고, 8월부터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있는 새가족이다. 현재 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늦깎이 학생인지라 순예배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 8월 고양은평공동체 하반기 개강예배에 처음 참석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일본 문화탐방’ 모집 광고를 보고 남편에게 가겠다고 했더니 나에게 “아웃리치 가야지!”라고 말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입에서, 개강예배에 함께 와서 들었던 ‘아웃리치’, 그것도 일본으로 가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더니 깜짝 놀랐다. 남편을 통해 말씀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양은평공동체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았다. 나는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짐 위에 예수님의 명에까지 이고 지면서 힘겹게 비틀거리며 아프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에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르심의 명에가 참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유난히 번덕스러웠던 날씨도, 오오시마섬을 들어가는 배를 놓쳐서 다음 배를 타고 가야했던 에피소드도 하나님의 숨은 보물을 찾는 아웃리치팀에게는 재미난 게임 같았다. 오오시마섬에서의 전도는 팀별로 이뤄졌는데 우리 팀은 성인 세 명과 어린이 두 명이였다. 먼저 어린이 두명이 벨을 누르면서 일본어로 인사하고, 사람이 나오면 한국어와 일본어로 쓴 전도지를 읽었다. 나도 서툰 일본어 몇 마디 보탬. 그 틈에 또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한국 김과 라면이 든 ‘오미야게’를 건넸다. 마지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담대하게 다음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무척 신나 보였다. 나도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렸다.

아웃리치 다녀와서 남편에게 “일본에서 본 삼나무처럼 나도 끈게 자라고 싶다”고 고백했더니 남편이 “구부러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거야”라며 내 신앙을 지지하고 격려해 줬다. 남편을 보면서 아웃리치 여정은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모든 여정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전문가 기고

신앙에세이

정우성의 사과가 필요해



문지호 집사
(의료윤리연구회장,
한강공동체)

배우 정우성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유명 여성 모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시끄러웠다. 그의 대응 하나하나가, 영화제 시상식 자리에서의 한마디가, 심지어 그를 바라보는 다른 유명인들의 표정마저도 기사화되었다. 혼전 임신이 탄로 나면 연예계 생활이 힘들어지던 것은 이제 옛말이다. 혼전 임신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축하받으며 당당히 결혼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성윤리 수준이 하향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건은 윤리적으로 도가 지나쳤다. 정우성은 친부임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책임은 지겠다고 한다. 결혼도 안 하고 책임을 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했지만, ‘책임’의 의미를 월 300만 원의 양육비 송금이라고 여러 언론이 알려주었다. 결국 양육비를 보낸다는 것으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편과 사별한 아기 엄마나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된 여인이 3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책임의 영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유부남도 아닌 남성이 미혼 여성과 만나 생명을 잉태하였다면 그다음 책임은 당연히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 아닌가? 소위 “오빠가 책임질게”라는 우리 시대의 선언은 그녀와 결혼해 함께 잉태한 아이가 아빠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다는 의미다. 태어나면서부터 언론에 노출된 아이는 자라는 내내 온갖 편견과 극성스러운 관심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뻔히 TV에서 보이는 아빠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혼란 속에 살지는 않을까? 아빠의 책임을 ‘양육비’로 인정한 아이는 장차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온전히 배울 수 있을까? 적지 않게 걱정된다. 아빠의 품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인한 생물학적 보호 아래 누리는 안정감을 글로만 배워야 하는 아이는 그의 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빠의 책임은 사실 짐이 아니다. 아이를 돌보는 책임은 온전히 아빠의 권리다. 아이를 안아 보호할 책임을 지는 동안 아이의 보들보들한 뺨을 만지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아이를 훈육하는 책임을 맡은 동안 ‘아빠’는 권위 있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빠의 권위는 고달픈 세상에서 비겁하지 않게 살게 하는 최고의 동력이다. 아이의 잘못을 뒤흔들어야 하는 책임을 지는 동안 아빠만의 강력한 존재감으로 인생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나를 아빠 되게 한 아이가 주는 선물이다. 아버지의 권리인 부권(父權)은 양육비를 아무리 많이 송금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아이의 권리를 지켜줄 때만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정우성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나한테 사과해요!”라는 그의 명대사처럼 국민은 그에게 소리치고 있다. 이 시대의 결혼에 대한 윤리 기준을 낮춰버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결혼도 안 할 여성과 무책임한 관계를 맺으며 노골적으로 성윤리 기준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막 태어나 아빠의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언론의 동정만 받게 된 그의 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이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아이의 입장은 생각조차 안 하는 비혼 출산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우성의 행보는 돌이키기에 늦지 않았다. 아무쪼록 온 국민이 사랑한 배우가 죽는 날까지 아들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다. 가정을 꾸리는 책임을 지어보라. 세간의 걱정과 달리 아버지가 된 그대는 날개를 달 것이다. 지난 시절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이생명 선교사
(2000선교본부)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2000선교본부에서 선교동원을 담당하고 있다. 사역과 여러 기도모임, 선교스쿨에서 수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다. 이 표어가 전하는 목직한 가치를 삶 전체로 전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만남이 내게 큰 기쁨이다. 누구보다 온 맘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사명으로 여기며 섬기는 성도님들은 발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인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서 아름다운 조연의 삶을 선택한 사도 안드레를 소개하고 싶다. <요한복음>에서 그의 모습이 세 번 등장한다.

첫째,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인물이다(요 1:42). 세례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안드레는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하룻밤 깊은 교제를 했다. 그날의 만남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다. 이튿날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메시아를 직접 경험한 안드레는 흥분과 감격 가운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했다. 만약 이 증언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일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없었을지 모른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석에서 ‘게바’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실 만큼 관심을 보이셨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자신보다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형을 보면서 안드레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함께 시간을 보낸 자신이 아니라 데려온 사람에게

아름다운 조연의 삶

만 메시아의 관심이 집중되는 걸 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안드레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안드레는 주목받지 않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남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알고, 뒤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행했다. 안드레가 있었기에 베드로를 통한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

둘째, 안드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이끈 사람이 바로 안드레다. “이 수많은 무리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의심 섞인 반문을 했지만, 안드레는 작은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요 6:9). 모두가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작은 희망을 선택했다.

셋째, 안드레는 빌립이 헬라어가 능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방인 순례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요 12:22).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방인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향에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 바울이 헬라의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선교에 큰 힘이 되었다.

안드레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주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용기 내어 예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에 들지 못했고, 다른 공관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소개되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이처럼 주목받는 자리, 빛나는 위치가 아니어도 안드레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따라 선교적 소명의 길을 걷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자신을 비워내고 철저한 조연으로 잊혀지는 삶을 선택한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는다.

권사칼럼



김경숙 명예권사
(OCC공동체)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권사 직분을 받으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분에 대한 겁도 덜컥 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준비되면 임직을 받겠습니다”라고 거절했다. 그게 벌써 20년 지났다.

그 이후 여러 일이 있었다. 물론 행복한 일이 많았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낳은 자녀라 그런지 손주들이 어찌 그리 예쁜지 큰 행복에 빠져 지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남편도 별 어려움 없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여겼다. 탄탄대로를 달리는 인생 앞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생각은 조금밖에 하지 못했다.

행복에 젖어 있던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이 닥쳤다. 그때는 그 힘든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들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돌아봤더니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복, 나의 의로 여겼던 그 모든 행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자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고, 그것을 거두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

내게 주어진 사명!

는 연약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고 싶은 마음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났고, 내 모습에 조금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요일만 다니던 교회였는데,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매 학기 양육스쿨에 등록했다. QT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QT나눔방에도 참여했다. 순식구들과 삶을 나누고, 예배드리려고 순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나의 아픔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그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관계를 끊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식 같은 연배의 성도들과도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더불어 살고 있다. 나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느꼈다.

삶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임직에 대한 소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내가 직분을 귀히 여기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신 것 같다.

여전히 직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임직 과정을 밟았다. 임직스쿨의 과제인 봉사, 성경통독, 새벽기도, 독후감 작성, QT 작성이 버겁긴 했지만, 그동안 받은 훈련이 도움이 되었다. 지난여름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겼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본다.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머느리와 손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Michael Lee

◆전도사

강요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홍기	이희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최유준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코바아
시 매구	하연진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한스모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ne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시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서연준	남 영	노유철
백남인	이민철	송대민	신종수
우호영	유영오	이광철	이문도
이정기	임병목	정길안	한덕홍

홍규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성집	박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도택	신제호	손준석
이관표	이상원	여훈필	유창민
이순환	심상일	이수성	이영환
이준상	정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철	최경주	한상훈
허규희	홍환희	황용인	Hyun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성식	염성국	윤부국	
-----	-----	-----	--

◆합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갑수	윤창근
유인환	이정식	인환식	오명진
정석환	최태하	최승호	최태영

주교령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윤희
김진용	김종규	남병호	박빈규
박성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광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큐티지 <생명의 삶> 편집자 1명
 형태: 계약직(1년),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본사)
 기간: 12월 20일까지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및 시설관리
 우대: 인건 거주자, 컴퓨터활용능력자, 운전기능자(종보통)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All Nations Worship & Praise School

2025 WINTER/SUMMER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

“해산하는 수고”

(갈 1:10, 4:19; 대상 29:10-20; 대하 6:12-42)

2025년 1월 13일(월) - 1월 18일(토)

2025년 7월 28일(월) - 8월 2일(토)

*이 기간에는 미래세대 및 어린이들을 위한 경배와찬양학교로 초점을 맞추어 모든 세대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미래세대들을 위한
경배와찬양학교

2025년 1월 13일(월) - 1월 16일(목)

2025년 7월 28일(월) - 7월 31일(목)

* 이 기간 중에 어린이, 대학 청년, 교사, 교역자, 사역자 및 직장인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

2025년 1월 16일(목) - 1월 18일(토)

2025년 7월 31일(목) - 8월 2일(토)

* 이 기간 중에 십대, 대학 청년, 교사, 교역자, 사역자 및 직장인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5 WINTER/SUMMER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는
하스데반 선교사와 경배와찬양 국제사역팀이 인도합니다.

장소 : 한국 -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60주년 기념 채플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문의처 :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독일: Tel +49 (0)179 5705756 / 한국: Tel +82 (0)2 7969700

Homepage: allenationen.org / email: 7000school@gmail.com



접수

경배와찬양

경배와찬양 (ANM : ALL NATIONS WORSHIP&PRAISE MINISTRIES)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배와찬양의 국제명칭입니다. 경배와찬양은 시편 146편, 67편,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가지 사역, 1) 예배의 회복 2) 영적 자유와 치유 3) 전도와 만국선교 4) 구제와 긍휼사역을 21세기와 주님이 다 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7000 모임 (7000 Gathering)은 영감예술 시대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재현신”을 하기 위한 경배와찬양의 시대적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학개 2장, 열왕기상 19장 및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청지기의 삶’과 ‘고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7000 청지기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